

[SND 기금 프로젝트]
사별가족 돌봄 센터 “희망샘”



2023 년말에 SND 기금을 지원받아 사별가족돌봄을 위해 필요한 기기 및 필요 물품을 구입하면서 프로그램은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SNS 와 지인의 소개, 주보를 통해 모여진 10 분의 사별자들이 상담 과정 후 2024 년 4 월 16 일~6 월 4 일까지 프로그램 8 주 프로그램을 마치고 프로그램 후 3 개월에 한번 후속 모임을 갖었습니다.

2025 년 2 월, 서울 분원의 노틀담 교육관에서 사별가족돌봄센터 “희망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 월 14 일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미사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25 년 4 월 1 일 ~ 5 월 20 일까지 12 분이 8 주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사별가족돌봄 프로그램은 가까운 가족, 즉 배우자 혹은 자녀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 고통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사별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감정(슬픔, 분노, 화, 죄책감)을 심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치유 활동을 하고, 남겨진 가족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8 주 동안 상담과 그룹 작업 등에서 사별 가족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통해 재조정된 삶을 찾아가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 주보를 통한 공지, 개별적인 연결로 사별 가족(배우자, 자녀, 지인 등)를 만나고, 상담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8 주 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지속적인 돌봄으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인 유아, 청소년, 젊은이들만 아니라, 특별히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관구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사도적인 사별가족돌봄 센터 “희망샘”의 시작과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던 SND 기금(2023 년말에 지원)은 하느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는 우리 카리스마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
마리 베르베투아 수녀, SND